본격적인 경쟁체제로 들어서는 무료 백신

2008.05.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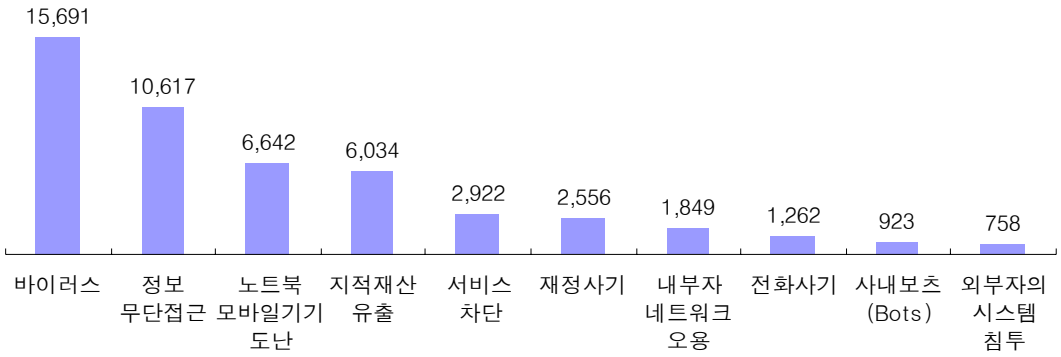
웜,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스팸 등 보안 위협들이 고도화·다중화·복합화되고, 범죄화되면서 안티바이러스·스팸 제품들도 통합보안서비스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형 보안사고 여파로 무료 백신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각 업체들은 제품의 서비스 고급화와 함께 다른 업체들과의 제휴 및 협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정보보호 생활화는 시대적 패러다임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들의 대부분은 타인이 자신의 PC를 엿보고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잇달아 터진 인터넷 쇼핑몰, 금융기관 해킹 등 보안사고로 인해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새삼 고조되고 있다.

빈번하는 보안사고의 실례에서 보더라도 개인·기업 정보 및 지적재산 유출, 바이러스와 같은 1차 피해뿐만 아니라 계정 도용, 보이스 피싱, 금융 사기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등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그림 1 보안 사고로 인한 손실 유형



자료: 전자신문

시만텍의 '인터넷 보안 위협 보고서 13호'에 따르면 웹이 공격 활동의 가장 흔한 매개가 되고 있으며, 웹 사이트를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위협 요소에 감염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과거에는 악의적인 웹 사이트 방문, 이메일 첨부파일 클릭 등

한정적인 방법에만 위험이 노출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해커들이 정상적인 웹 사이트를 감염시켜 개인 및 기업 사용자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정부·기업·개인의 정보보호 및 보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다.

국내 안티바이러스, 2012년까지 연평균 2.3% 성장에 그쳐

전세계 SCM(Secure Contents Management)[1] 시장은 2007년 66억 달러에서 2008년 75억 달러까지 성장하고, 2011년에는 96억 달러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11.4%씩 성장하면서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표 1 해외 SCM 시장 규모

(단위: 백만달러)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CAGR
세계	5,603	6,581	7,501	8,278	8,900	9,599	11.4%
아시아/태평양	535	633	749	876	1,002	1,136	16.3%

자료: IDC,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재인용

한편 국내 안티바이러스[2] 시장은 2007년 751억원에서 2008년 766억원으로 억원까지 2.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2.3%에 그쳐 시장이 포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세계 시장이 10% 이상의 고성장세를 보이는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 국내 안티바이러스 시장 전망

(단위: 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CAGR
시장규모	721	751	766	782	797	812	827	2.3%

자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KRG 재편집

국내 안티바이러스의 성장이 정체되고 성장률이 세계 시장에 비해 극히 저조한

1) SCM에 포함되는 제품에는 안티바이러스, 웹 필터링, 메시징 보안(안티스팸, P2P 보안 등) 이 있으며, 최근에는 안티스파이웨어, 안티피싱, 유해 트래픽 차단, 정보유출차단, 공격적 콘텐츠 차단 등으로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음

2) 안티바이러스 제품에는 바이러스 백신과 안티스파이웨어 제품이 포함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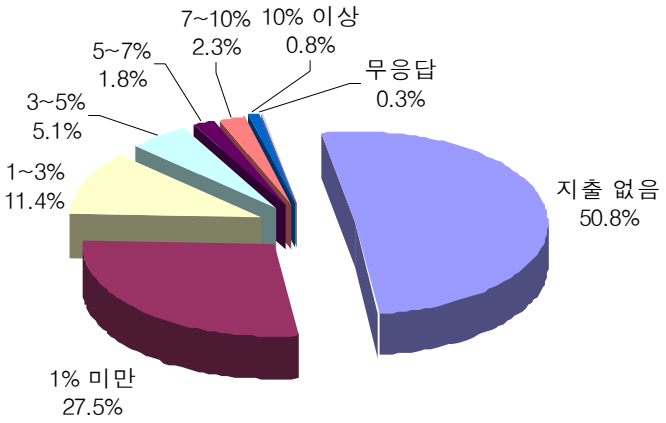
것은 전반적으로 국내 정보보호 시장의 침체와 관련이 깊다. 국내 정보보호 시장은 업체들의 잇단 퇴출, 보안의식 결여, 기업의 보안 투자 저조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좀처럼 성장세로 돌아서기 힘든 모습이다.

국내 정보보호 시장은 2000년 초만 하더라도 엄청난 성장을 이끌 첨단 산업으로 각광을 받았지만, 글로벌 대형 IT기업들의 정보보호 시장 진출, 외산 정보보호 업체들의 영향력 강화, 저가 수주 및 과당 경쟁이 지속되면서 업체들의 시장 퇴출이 반복되어 왔다. 공공 시장보다 훨씬 더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민간 기업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었다.

또한, 정보보호에 대한 의식의 부족도 침체의 한 요인이다. 비밀번호 관리, 사이트 약관 체크, 공공장소에서의 금융거래, 백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패치 관리 등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금새 잊거나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겠지"와 같은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편, 기업들의 정보화투자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율도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보보호 투자가 없다는 비율이 50%에 이르고 있으며, 선진국 수준인 7% 이상을 투자한 기업은 3%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조금 불편하더라도 개인과 기업 모두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의 생활화가 한시라도 빨리 정착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림 2 국내 정보화 투자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율(2007년)



자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안티바이러스·스팸 시장은 안철수연구소가 버티고 있어 그나마 나은 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하우리가 상장 폐지의 아픔을 겪었으며, 안철수연구소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의 매출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언제라도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각 정보보호 업체들은 지속되고 있는 경영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수합병을 시도하거나 사업 다각화에 나서고 있지만, 안철수연구소, 윈스테크넷 등 몇몇 업체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보안 위협의 고도화에 따른 통합 보안 서비스로 진화

과거에는 불특정 다수를 공격하고 소란을 일으키던 형태였으나 이제는 특정 국가, 지역, 단체의 목표를 은밀하게 공격하는 추세가 일반화되고 있다. 또한 보안 위협 요인들이 웜, 바이러스 등과 같이 단순한 형태였으나, 최근에는 트로이목마, 스파이웨어, 피싱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들 보안 위협 요인들이 다중·복합화 되면서 심각한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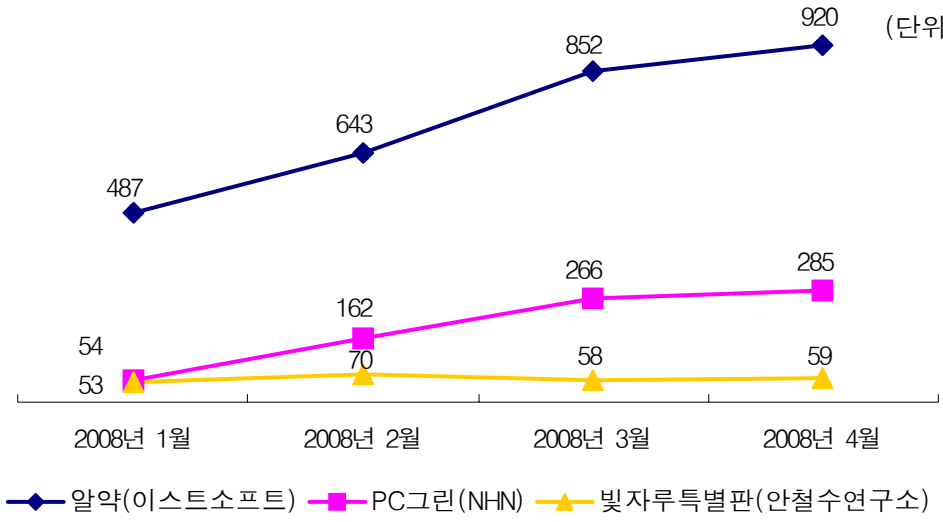
아이템사이트들의 거래 중단, 인터넷 쇼핑몰 및 금융기관에 대한 해킹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특정 목표에 대해 돈을 갈취하거나 정보를 유출하여 판매에 나서는 등 노골적으로 사이버 범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안티바이러스 제품들도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다중·복합 위협에 대해 보호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방화벽, 안티바이러스, 컨텐츠 필터링, 스팸 필터 등이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된 통합 보안 제품들로 바뀌고 있다. 게다가 컴퓨터 최적화 및 원격관리 등 온라인 보안 서비스 기술이 추가된 토털PC케어서비스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안철수연구소의 V3 365 클리닉, V3 IS 2007 플래티넘, 시만텍의 노턴 360, MS의 원케어 등과 같은 제품들이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제품들이다.

무료 백신을 둘러싼 갈등 심화

최근 안티바이러스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무료 백신을 둘러싼 논란과 업체들 간의 갈등이다. 특히 외국산 엔진을 장착한 무료 백신이 보안사고 여파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인터넷 및 PC 이용자층을 파고들면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그림 3 무료 백신 서비스 이용자수 월별 추이



자료: 코리안클릭

표 3 무료 백신 현황

제품/서비스명	제공사명	공급사명	엔진명
다음툴바	다음	안철수연구소	파워V3
메가닥터	KT	비전파워	닥터웹
알약	이스트소프트	비전파워	비트디펜더
야후툴바	야후	비전파워	닥터웹
PC그린	NHN	카스퍼스키랩	카스퍼스키
빛자루특별판	안철수연구소	안철수연구소	파워V3

자료: 각사 발표자료 정리

현재, 이스트소프트(비전파워), NHN 등이 루마니아와 러시아 등 외국산 엔진 기반의 무료 백신 제공에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안철수연구소도 이에 맞대응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스트소프트는 파일 압축(알집), 이미지관리(알씨), 음악(알송) 등 기존의 다양한 유틸리티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제품군 확보의 일환으로 알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NHN은 웹서비스를 데스크탑으로 확장시켜 차세대 수익원으로 삼으려는 목적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구글이 구글앱스 등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무료 백신의 확산은 기존 백신 전문 업체들과의 마찰을 불러오고 있으며, 상반되는 주장들이 오가고 있다. 보안에 대한 철학과 비전, 기술, 서비스가 없는 비전문 기업들이 마케팅과 서비스를 위해서 무분별하게 무료 백신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보안 시장의 위축과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주장과 무료 백신은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보호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용 부담을 줄여준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기능은 대동소이, 사용자의 관리가 필수적

각 업체들이 제공하고 있는 무료백신은 기능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바이러스·악성코드에 대한 실시간 감시, 검사, 치료는 물론 PC시스템 최적화 기능까지 제공하고 있다. 업체에 따라서는 보안패치 및 네트워크 방화벽 기능, 그레이웨어 검색 및 차단 기능까지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표 4 주요 무료 백신들의 기능

종류	주요 기능
다음툴바	- 바이러스, 악성코드, 해킹 프로그램 진단 및 치료 - 실시간 검사 - 레지스트리, 하드디스크 정리, 시스템 관리
알약	- 실시간 감시, 자동업데이트, 예약검사 설정 기능 - 바이러스, 웜, 트로이목마, 해킹툴, 스파이웨어 검사 및 치료 - 레지스트리, 하드디스크 정리 등 시스템 관리
빛자루	-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그레이웨어, 피싱에 대한 보안 기능 - 네트워크 방화벽, 실시간 검사, 자동 업데이트, 보안 패치 - PC 최적화 기능 - 긴급대응 인프라 구축
PC그린	- 바이러스, 악성코드 검사 및 치료, 엔진 업데이트 - 네트워크 방화벽, 보안 패치, 실시간 검사 - PC 최적화

자료: 각사 발표자료 정리

전문가들은 각 무료 백신들의 기능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진단율 외에 진단 치료 능력, 오진 여부, 긴급 대응 능력, 서비스·기술 지원, 진단속도, 리소스 점유율, 사용의 편의성 , 그리고 통합 보안 능력을 골고루 살펴서 가장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무료 백신 제품이 아무리 좋은 기능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사용자 스스로가 지속적으로 PC를 관리하고 수시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악성코드에 대비하는 등

인식이나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품 고급화, 업체간 합종연횡 가속화

무료 백신은 포털 업체들이나 유틸리티 업체가 포털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충성도를 높이거나 새로운 제품 라인업 구축을 목적으로 시작했으나 이제는 전문 보안업체까지 가세하는 상황이다. 각 업체들은 제품의 서비스 고급화와 다른 업체들과의 제휴·협력 관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안철수연구소는 기존 스파이제로를 단종하고 무료인 빛자루특별판과 유료인 V3 365 클리닉으로 제품 체계를 2원화했다. 원격 및 출장 케어로 고객 서비스를 고급화하면서 무료 백신 이용자들을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하나포스닷컴을 통해 V3 IS 2007 플래티넘을 공급하고 있는데, 포털업체와의 제휴 시, 자사 브랜드 가치 유지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스트소프트는 개인용 알약의 히트를 기반으로 기업용 알약 제품을 출시하면서 기업용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기업 고객 전용 핫라인을 구성하는 등 고객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자사 온라인 게임인 카발온라인과의 연계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NHN은 현재 PC그린 카스퍼키스랩과 협력하고 있는데 하우리까지 가세시켜 멀티 엔진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업체들과 제휴를 확대하여 오픈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표 5 주요 업체들의 무료백신 사업 동향

업체명	무료 백신 사업 동향
안철수연구소	- 빛자루 특별판(무료), V3 365 클리닉(유료) 체제 구축 - 하나포스닷컴(V3 IS 2007 플래티넘), 다음(빛자루)과 제휴 - V3 365 클리닉을 통해 원격케어 및 출장케어 등 서비스 고급화에 주력
이스트소프트	- 자사 온라인 게임과 연계사업 추진(PC방 배포) - 기업용 알약 출시를 계기로 기업시장 본격 공략 - 기업고객 전용 핫라인 구성 등 고객지원 강화
NHN	- 카스퍼스키랩, 하우리와 제휴를 통해 멀티 엔진 체제 구축 -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픈플랫폼 지향

자료: 각사 발표자료 정리

다른 업체의 엔진을 이용하는 비보안 업체들에게는 무료 백신이 하나의 서비스로서 매력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기존의 정보보호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한이나 혹은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한편, 안티바이러스 전문 업체들은 그동안 축적한 노하우와 기술력을 기반으로 무료 백신과 차별화되고 고급화된 서비스나 추가 기능들을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정보보호 산업 강화를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시급

선진 외국에 비해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미비한 점도 국내 정보보호산업이 침체에 빠져 있는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범 정부적인 차원에서 정보보호 및 사이버 보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정보보호 및 보안 산업도 군대나 경찰과 마찬가지로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표 4 각국의 정보보호 정책 및 지원 동향

국가명	정보보호 정책 및 지원 동향
미국	- 911 이후 사이버보안을 연방정부 R&D 분야에서 최우선 프로그램 중 하나로 선정 • 사이버보안연구개발법 제정(2002), 국가사이버공간 방어전략(2003), 연방 사이버 보안 및 정보보증 연구개발 계획(2006) - 연구개발 감독 및 조정, 비공식 정책조정지원, 핵심 연구수행 및 기금출연의 형태로 연방정부가 사이버보안 R&D에 참여 •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사이버보안 및 정보보증에 관한 부처간 실무그룹(CISA) 등이 참여 - 연방정부 사이버보안 R&D 정책의 향후 과제는 회계감사원(GAO)의 감사보고서에 발표됨 • 연구의제 발굴, 일정, 평가 목표 및 수단, 책임할당 등을 추진할 것을 지적/권고 • 기금 출연한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RaDiUS/Science.gov에 공개/제공 • 연방정부 사이버보안 연구개발 예산의 집계로 R&D 정책 효율성 제고
EU	- 2010년 이후의 미래 정보보호 연구개발 전략 • 9대 단기 연구방향(~2010): 이해당사자에게 권한위임, 유럽지역 특성에 적합한 보안성 및 신뢰성, 인프라의 견고성과 가용성, 상호호환성, 안전한 시스템 개발 프로세스, 보안성 및 신뢰성 지속적 유지, 이용자 중심의 표준화, SOA의 보안성 및 신뢰성, 보안기술 - FP(Framework Programme)7의 “ICT Work Programme 2007-2008 • 4대 중장기 중점과제: 1. 디지털 사회에서의 취약성 및 위협에 대응 2. 디지털 프라이버시와 사회전체 보안과의 이원성 3. TSD의 과학기술 기반 강화를 통한 객관적이로 자동화된 프로세스 4. 디지털 세계를 초월한 새로운 융합

일본	-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안전한 유비쿼터스 사회지원 기반기술, 고생산성/고신뢰 소프트웨어 작성기술 등의 정보보호 기술들을 선점하여 중점적으로 추진 - 내각관방 기술전략전문위원회: 정보보호 연구개발 현황 및 과제 분석, 2007년 R&D 정책 방향 제시 - 경제산업성 정보보호 관련 기술과제 • 암호기초, 통신에 대한 암호 응용, 인증/액세스 제어, 공격과 방어, 콘텐츠 등 - 총무성의 정보통신연구기구, 경제산업성의 정보처리추진기구 및 산업기술종합 연구소, 문부과학성의 과학기술진흥기구와 학술진흥협회가 정보보호 업무 담당

자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보보호 이슈리포트 2008-01, 2007-11, 2007-8

따라서 국내 정보보호 시장의 활성화와 산업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업계의 목소리와 기술 발전 추세가 반영된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최신 연구기술 과제 수행, 정보보호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부처가 모두 포함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정보보호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 공공부문의 정보보호 예산 확대,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과 같은 정부지원 사업의 적용, 정보보호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기관 지원, 세금감면, 국민 및 기업의 보안의식 강화 등과 같은 지원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17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개인정보보호법안에 대해 18대에서 통과시키거나 혹은 대체 법안을 마련하는 것도 ma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